

창단 15주년 기념 제38회 정기공연 『산 불』



* 공연개요

- ◆ 공연일시 : 2005. 4. 8(금)~17(일) 평일 19:30 / 토요일 · 일요일 16:00
- ◆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 관람인원 : 816명

* 작품내용

소백산맥을 타고 내리는 어느 산골짜기엔 이른바 과부마을이 있다. 오직 생존의 사실만을 알고 지내는 이들에게 전쟁이라는 비극이 스며든다. 험준한 산악지대인 과부마을은 낮과 밤이 다른 이데올로기로 살아간다. 공비들이 내려와 식량을 공출 하는 날, 반목하며 살아온 과부 양씨와 이웃에 사는 과부 최씨는 옥지거리를 주고 받는다. 그런 양씨의 며느리 점례는 드물게 보는 유식자이며 아름답고 젊은 과부고, 최씨의 딸 사월이도 젊은 과부다.

야경을 하던 날 밤 부상을 당한 데다가 추위와 허기에 시달리는 전직 교사 출신의 규복이라는 청년이 점례네 부엌으로 숨어든다. 점례는 어쩔 수 없이 규복을 뒷산 대밭에 숨겨 주었고, 차츰 동정심을 품게 되어 가족들의 눈을 피해 음식을 날라다 먹인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엔 사랑이 싹트게 되고....

한편 사월에겐 어린 딸이 있었다. 가슴 속 깊이 타오르는 여자의 욕망을 참아내던 어느날 사월은 대밭에서 규복이와 점례가 밀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다. 사월은 점례에게 규복의 정체를 따져 묻고, 결국 규복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 겨울이 가고 봄이 되자 사월은 이제 홀몸이 아니다.

며칠 후 국군은 공비토벌을 위해 대밭에 불을 지른다. 서로만 아는 비밀 때문에 점례는 점례대로 사월은 사월대로 애절하게 매달리지만 사나운 불길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퍼져나갔다. 이윽고 대밭에서 규복이 튀어나오다 총탄에 무참히 쓰러지고, 규복을 향한 두 여인은 속으로 절규한다.

* 주요스텝

◆ 작 : 차범석

- 1924년 전남 목포 출생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밀주>와 <귀향>으로 등단
- '제작극회' 창단(56년)
극단 '산하' 창단 대표(63년)
청주대학교, 서울예술대학 강의
대한민국예술원 원장 역임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70년)
대한민국연극제 희곡상(81년)
대한민국 예술원상(82년)
대한민국 문학상(91년)
- 희곡집<껍질이 찢어지는 아픔 없이는>, <대리인>, <환상여행>
<학이여 사랑일레라>, <식민지의 아침>
- 저서 <한국 소극장 연극사>, 자서전 <떠도는 산하> 등

◆ 연출 : 문고현

- 1942년생
서라벌예대 졸업
서울예술신학대학, 순복음신학원 강의
- 극단 '춘추' 창단대표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신인연출상)
동아연극상 대상 (연출상)
서울연극제 작품상, 연출상
한국연극예술상
- 연출작품 : 아마테우스, 드레서, 막차 탄 동기동창, 산불, 해곡,
유리동물원, 감찰관 등 70여편

◆ 조연출 : 손경희

◆ 무대디자인 : 송관우

◆ 의상디자인 · 소품디자인 : 손진숙

◆ 조명디자인 : 이봉도

◆ 분장디자인 : 박영화

◆ 사진 : 송원호

◆ 단무장 : 김금식

◆ 기획 : 고동희, 이옥희

◆ 진행 : 유은미

<극장스텝>

◆ 무대감독 : 최성국

◆ 조 명 : 이승민, 방승준

◆ 음 향 : 이복행

◆ 무대기계 : 나명용

* 출연자

- 김노인 : 마을의 유일한 남자. 노망이 든 귀머거리
- 양 씨 : 김노인의 며느리이자 과부
- 점 레 : 양씨의 며느리이자 학식을 지닌 젊은 과부
- 귀 덕 : 약간 모자라는 양씨의 딸
- 사 월 : 점레의 친구이자 몸이 뜨거운 젊은 과부
- 최 씨 : 사월의 어머니로 역시 과부

- 규 복 : 대밭으로 숨어든 공비로 점례, 사월과 사랑을 나눈다.
- 쌀레네(과부), 정임(과부), 이웃아낙 갑·을(과부), 병영택(포목장수), 원태(자위대장), 대장(공비대장), 공비 갑·을·병, 국군 갑·을·병, 아낙 갑·을, 끝순

- | | |
|-------------------|------------------|
| ◆ 원태 : 이필훈 | ◆ 공비 : 문용철 |
| ◆ 김노인 : 임홍식 | ◆ 양씨 : 김용란 |
| ◆ 공비 : 정남철 | ◆ 사월 : 조윤경 |
| ◆ 공비 : 서국현 | ◆ 국군 : 이범우 |
| ◆ 국군 : 차광영 | ◆ 국군 : 심영민 |
| ◆ 공비대장 : 김세경 | ◆ 점례 : 송정화 |
| ◆ 정임 : 강주희 | ◆ 규복 : 김현준 |
| ◆ 이웃아낙 : 강성숙 | ◆ 최씨 : 정순미 |
| ◆ 쌀레네 : 김문정 | ◆ 병영택 : 오민휘 (객원) |
| ◆ 이웃아낙 : 차상미 (객원) | ◆ 끝순이 : 김성숙 (객원) |
| ◆ 귀덕 : 박덕순 (객원) | |

* 공연평

인천시립극단의 <산불>

오세곤(순천향대 연영과 교수)

인천시립극단이 창단 15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립극단이 단장 선임 문제로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 존폐를 가늠하기 어렵고 국립극단도 이윤택 예술감독이 맘먹고 공무원 중심의 운영 체제를 비판하는 걸 보면 여전히 구태를 못 벗은 모양이다. 대표적인 국공립 극단의 상황이 이러하니 인천시립극단을 보며 여긴 정말 별일 없냐 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이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내부를 속속들이 모르므로 그저 펜찮겠지 할 수밖에 없지만.

학교의 중심이 교육이듯 극단의 중심은 공연이다. 즉 극단에서 모든 가치 체계는 공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연출과 배우뿐 아니라 작품 스태프와 극장 스태프, 나아가 행정 담당자들한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철칙이다. 최고 행정 책임자가 단원들을 일반 개인 회사의 부하 직원쯤으로 여기거나 공연이라는 실행물 앞에서 행정 절차만을 따지는 태도야말로 국공립 극단이 가장 흔히 겪는 장애이다.

마침 현 정부의 새예술정책에도 국공립극단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나 극히 지엽적이거나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적어도 전국 270여개 시군구에 공립극단을 설립하거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예술회관에 상주극단 제도를 정립하고, 인력 수급 또한 안정된 상임 단원 체제를 지향하되 소위 '고인 물'이나 '철밥통'이 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 및 재교육을 일상화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객원 제도 또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공연 작품은 극단의 역량을 반영한다. 그 역량은 구성원들이 공연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는 데 토대를 둔다. 여기서 섬긴다 함이 기량뿐 아니라 정신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이나, 그 구성원이 배우와 연출만을 뜻하지 않음은 이미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문고현 연출로 공연한 차범석 작 <산불>로부터 인천시립극단의 현재 역량을 추출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산불>은 고전이다. 이데올로기는 이성인데 반해 인간의 현실은 지극히 감성적이고 본능적이다. 따라서 평범한 인간들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는 현실은 압박하는 힘겨운 에너지일 뿐이다. <산불>은 이미 40여년전 그것을 명쾌하게 적시하였다. 사실 과거사 청산이라는 이성적 작업이 번번이 현실론에 막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그러한 기본 구도를 간과하는 어리석음과 그 현실론을 방패로 활용하는 영악함이 교묘하게 결합된 결과라고나 할까?

고전의 선택에는 위험이 따른다. 과거에 의해 타성에 빠질 수도 있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강박에 무리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공연은 적어도 후자 쪽은 아니다. 송관우의 사실적인 무대나 배우들의 연기 스타일이나 과거 여러 공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과거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얼핏 겉모양이 같아도 그 안에 전혀 다른 질의 내용물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불>에서 무대는 늘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것은 울창한 대숲과 주무대인 점레네 집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며 대숲 안에 깃든 규복의 공간과 점레네와 이웃한 사월네 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그렇게 볼 때 대숲은 무대 전체를 감싸안기에도 넉넉하였고 또 마지막 불붙은 상태에서 인간 세계를 위협하기도 충분하였다. 그러나 규복의 공간은 회전무대를 이용하여 대단히 기능적인 듯하지만, 사실은 그 육중한 회전물이 과연 작품 흐름에 맞는가 하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였다. 또 사월네 집이 점레네 집과 너무 가까운 것도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중간 출입구가 상대적으로 좁다보니 마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 다소 혼란스러웠다.

점레와 사월. 이 둘은 상당히 다르면서도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같은 남자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인물의 공간 배치가 쉽지 않음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맘만 먹으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는 가까우면서 보기에는 분명 다른 영역으로 느끼도록 하는 연극적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장치의 각도나 배경을 활용하는.

사실 점레와 사월은 이 연극에서 가장 중심적인 연기자들이다. 물론 연극의 질은 중심 연기자들으로써만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조역들의 역량에 의해 튼튼하게 보장되는 수가 많다. 사실 <산불>이야말로 안정된 조역이 다수 필요한 작품이다. 특히 김노인은 작품의 맛을 내는 감초 이상으로서 중견 남성 연기자들이라면 대부분 탐내는 역이고, 이번에 그 역을 맡은 임홍식도 어김없이 자신의 연기력을 발휘하였다.

그렇게 보자면 양씨 역의 김용란이나 최씨 역의 정순미도 무난히 소임을 다 하였으며, 김문정(쌀레네 역), 오민휘(병영택 역), 강주희(정임 역) 등의 연기도 작품의 결을 거스르지 않았다. 최초 등장하는 빨지산들이나 끝에 등장하는 국군들, 그리고 귀덕 역의 박덕순 등 객원배우들까지도 무리없는 것을 보면 인천시립극단의 평소 잠재된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점례와 사월, 그리고 규복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 중 규복은 크게 부각되지 않으므로 대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규복을 맡은 배우가 진정한 연기를 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개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있어 김현준은 그런 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그 고뇌의 흔적은 볼 수 있었다.

송정화는 키가 크고 조윤경은 상대적으로 작다. 송정화는 서구적 이미지고 점례는 우리 사극의 분위기다. 이것은 연출의 감각적 선택일까 논리적 선택일까, 아니면 극단 내부 상황의 당위적 결과일까? 어쨌든 이상적인 것은 극단이 확보할 수 있는 배우 자원이 충분하고 그 배우들의 기본역량은 모두 갖춰져 있고, 그래서 연출은 배우의 신체 조건이나 음색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대로 뽑으면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각각의 역량과 상관없이 일단 둘을 함께 놓았을 때 그 물리적 대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부조화한 쪽으로 흐르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대조를 중요한 연출 의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훨씬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즉 100분의 1 단위로 조립해야 할 정밀기기를 10분의 1 단위로 조립한 셈이라 하겠는데, 이럴 경우 만드는 이들의 의도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여 재미와 감동으로 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이번 공연이 과거와 비교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랬을 때 이 점례와 사월의 대조 부분은 유일하게 기존의 통념을 뒤집은 것이며, 사소하지만 마지막에 사월이 양젓물을 마시는 장면 대신 그 전 성격과는 달리 상당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떠나게 한 것도 나름의 변화이다. 그러나 역설이나 변화의 시도는 그것이 성공했을 때 효과가 큰 만큼 성공 확률도 낮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연극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 하겠는데, 1%만 모자라도 50%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마는 것이 연극 예술의 특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체험한 전쟁의 비극 <산불>

이 은 경

(시립인천전문대학 연기예술과 초빙교수, 연극평론가)

인천시립극단의 제38회 정기공연 <산불>이 2005인천연극제 개막 초청작으로 공연되었다. 차범석의 대표작 <산불>은 6·25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생존본능과 사랑의 욕망을 그린 사실주의 작품이다.

우리가 내전을 경험한 지도 벌써 반세기를 지나고 있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전쟁을 그린 대부분의 작품에서 중심인물은 남성이며 여성은 단지 부수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산불>의 중심인물은 여성(과부)들이며, 희생자의 입장에서 전쟁의 참상이 그려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작품의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이번 <산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대였다. 아들의 이념에 따른 최씨와 양씨의 갈등, 이념과 무관한 마을사람들의 낮과 밤이 다른 생존방식 등 현실을 그리는 공적인 공간으로 대밭으로 둘러싸인 산골집의 전경이 세밀하게 그려진다. 그리고 회전판에 의해 무대가 바뀌면 규복과 점례·사월의 욕망이 분출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대밭 속이 보여진다. 그리고 분리되었던 두 공간은 사월이 규복과 점례의 밀애를 엿듣는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 시골집 뒤로 비탈길을 내고 그곳으로 배우들의 등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간의 고립성과 폐쇄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등장인물들의 현실적 무력감을 강조하기도 한다.

시립극단 배우들의 연기도 매우 안정적이었다. 특히 송정화(점례)와 임홍식(김노인)의 연기를 칭찬할 만 하다. 송정화의 경우, 순종적이며 생활력 강한 전통적인 여성과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열정적인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무난하게 표현하였다. 또 임홍식이 분한 김노인은 이 작품에서 매우 상징적인 인물로 작가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인물이다. 김노인은 귀머거리로 치매에 걸려 있다. 그렇기에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만 하고, 배고프다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다. 다른 인물들은 전쟁 속에서 자신의 말도 하지 못하고 본능도 억제하면서 살아가는데 반해 김노인만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기에 김노인은 여인들의 갈등이 첨예할 때, 그들이 현실에 부딪쳐 절망할 때 등장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전쟁에서는 불완전한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상징한다. 이러한 역할을 임홍식은 잘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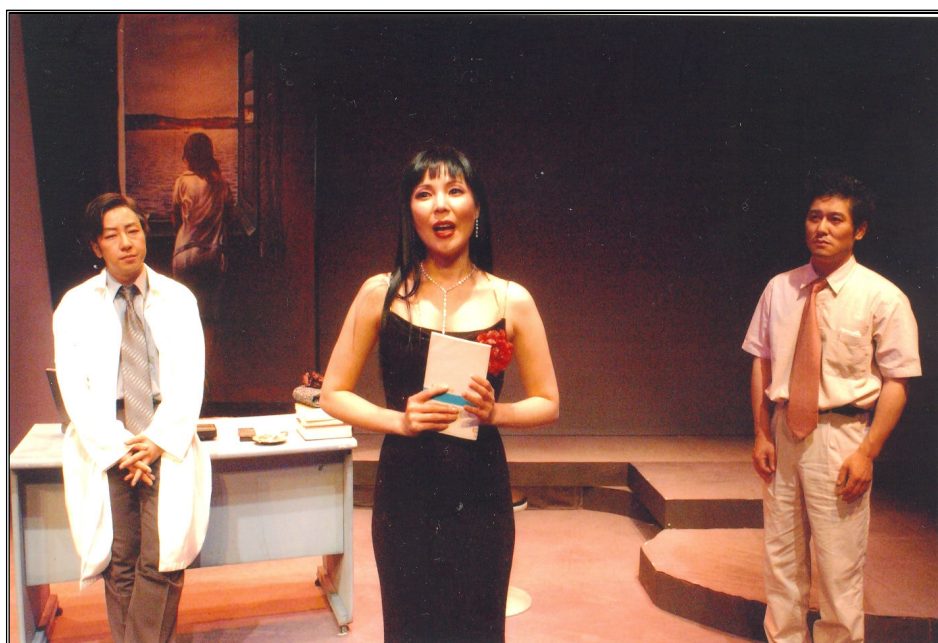
하지만 조윤경(사월)의 연기는 너무 단선적이고 신파적이어서 전체적인 앙상블에 부담을 주었다. 이 작품에서 사월은 점례와 갈등을 이루며, 억압된 현실에 대항해 육체적 본능을 탐닉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신경질적이며 욕정만 있는 인물로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다. 또 배경음악도 작품의 분위기에 맞도록 세심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인천시립극단의 <산불>은 잊혀져 가던 전쟁의 비극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다만 가정의 달 5월이 아니라 6월에 공연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제39회 정기공연 『타스마니아』

* 공연개요

- ◆ 공연일시 : 2005. 6. 16(목)~26(일) 평일 19:30 / 토요일 · 일요일 16:00
- ◆ 공연장소 : 수봉문화회관 소극장
- ◆ 관람인원 : 780명



* 작품내용

신경정신과 의사인 최박사의 환자 중에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인 미모의 윤애주라는 환자가 있다. 최박사에게는 김하림이라는 출판사 편집국장인 또 다른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강박증 환자이다.

우연한 기회로 김하림과 윤애주가 만나게 되고 최박사는 윤애주의 이야기를 시인인 김하림이 뮤지컬 극본으로 써서 공연을 하자는 제안을 한다. 윤애주는 무대에서 자신의 욕구를 발산함으로써 억압에서 탈출하고, 김하림은 시와 드라마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내재된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모노드라마의 시연회 날, 윤애주의 전남편 장근대가 찾아오고, 이를 본 김하림이 발작을 일으키며 그들의 숨겨진 아픔이 하나씩 드러나는데…….

* 주요스텝

◆ 극작가 : 윤대성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드라마센터 연극 아카데미 연구과 1기 수료.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출발' 당선.
'수사반장', '박순경', '한국인' '한지붕 세가족' 등 드라마 집필.
서울예술대학 극작과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교수
- 주요작품 : 「출발」 「출세기」 「노비문서」 「사의 찬미」
「이혼예찬」 「두 여자 두 남자」 「제국의 광대들」
- 수상 : 동아연극상, 현대문학상, 한국연극예술상 등

◆ 연 출 : 박원경

-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드라마센터 연극 아카데미 1기 수료.
현대극회 창단, 극단 박달 창단
극단 세미 상임연출
서울예술대학 겸임교수
- 주요작품 - 오페라 「심청전」 「출세기」 「침대소동」 「서툰 사람들」
「제국의 광대들」 「제십이야」 「라트라비아타」

◆ 무대감독 : 손경희

◆ 조명디자인 : 박석광

◆ 사 진 : 유재형

◆ 조연출 : 김세경

◆ 작 곡 : 박준상

◆ 단무장 : 김금식

◆ 무대디자인 : 송관우

◆ 분장디자인 : 박영화

◆ 기 획 : 고동희 이옥희

<극장스텝>

◆ 총무대감독 : 최종욱

◆ 조 명 : 박석광

◆ 음 향 : 최성민

* 출연자

◆ 최박사 부인 : 조윤경

◆ 간호사 : 송정화

◆ 여인 : 김문정

◆ 장근대 : 서국현

◆ 윤애주 : 강주희

◆ 김하림 : 차광영

◆ 최박사 : 김현준

* 공연평

상처 드러내기와 영혼의 치유, <타스마니아>

남승연

(가천길대학 영상문예과 겸임교수)

인천시립극단이 제39회 정기공연으로 <타스마니아>(윤대성 작/ 박원경 연출)를 공연하였다.

‘타스마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쪽에 위치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의 섬으로 때묻지 않은 원시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생태로 유명한 곳이다. 극 중에서 타스마니아는 주인공이 가고 싶어 하는 섬이며, 과거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이상향을 의미한다.

‘섬’이라는 공간을 그 자체가 단절과 고립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먼 남쪽은 심리적 거리를 극대화시켜 등장인물들의 상처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화 운동으로 고문을 당한 과거를 가진 시인 김하림과 남편의 집착과 폭행 때문에 상처받은 여자 윤애주는 최박사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다. 윤애주의 남편이자 김하림을 고문했던 전직 경찰관 장근대는 한 때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가는 데에 커다란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사람들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전문가인 최박사조차도 일탈을 일삼으며 무너져가는 자신의 아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의 아내는 2년 전 자살한 아들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작품은 희곡계의 원로이자 대가로 꼽히는 윤대성의 최근작으로 2001년 <나는 타스마니아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초연되었다. 그런데 앞뒤의 이야기에 모순이 생기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나이 설정에도 문제가 드러나는 등 이전의 작품에서 잘 짜인 유기적 이야기 구조를 보여주었던 윤대성답지 않은 실수가 보인다. 결국 작품의 완성도는 <노비문서>, <출발> 같은 이전의 작품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립극단은 최근에 <산불>, <혈맥>, <바다가 있는 풍경>, <이 풍진 세상의 노래> 같은 고전 혹은 고전적 느낌의 작품들을 공연했었는데, 이번 <타스마니아>는 동 시대의 감정을 다룬 작품이어서 매우 반가웠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색’의 사용이었다. 무대의 좌우에는 보라색의 구조물이 각각 3개씩 설치되었는데 비슷한 직선이면서도 비대칭의 각을 이루고 있어 불안하고 어두운 등장 인물들의 심리를 표현해주었다. 김하림이 고문을 당하는 장면에서 사용된 핏빛 붉은색은 잔혹함을 더해주고, 타스마니아의 석양을 표현한 붉은색은 아주 탁한 느낌이어서 그 곳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통 있는 극단인 만큼 배우들의 연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타스마니아> 뿐 아니라 다른 공연에서도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일부 배우들이 울림이 매우 큰 특이한 발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악가 중에는 신영옥처럼 곱고 단선적으로 뻗어나가는 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류드밀라 남처럼 울림이 크고 넓게 퍼지는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 단아하고 애처로운 느낌을 표현하는 데 좋고, 후자의 경우는 극적이고 폭발적 느낌을 전달하는 데는 좋으나 지나친 울림으로 과장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시립극단 배우들의 경우 울림 때문에 느낌의 전달이 증폭되므로 자칫하면 묘한 신과적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고받는 감정의 증폭이 어색한 부분이 나타났다.

캐스팅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극 중 33세인 최박사 부인, 38세인 장근대 역의 두 배우는 극중 인물과의 차이가 많이 느껴졌고, 특히 최박사와 부인 두 사람이 끌여가는 무대는 부부라 하기에 어색함이 많이 느껴졌다.

이번 <타스마니아>는 2001년 예맥이 연강홀에서 초연할 때 연출을 맡았던 박원경이 다시 한 번 연출을 맡아 중앙 무대의 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와 흡사한 무대, 의상, 조명 등을 사용하여 당시 무대의 재현에 그칠 뿐 시립극단 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색을 찾아 발전시키지 못했음은 아쉬운 일이다.

이 연극에서 김하림은 고문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를 헤집어 드러내고는 그렇게 소원하던 타스마니아로 간다. 그러나 그 곳에도 완전한 평화와 치유는 없었다. 스스로의 상처를 돌아보며 극복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각박한 세상에 지치고 힘들 때면 우리는 또 타스마니아를 꿈꾼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먼 그곳에서라면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싶다. 덴마크의 왕자님이 타스마니아의 평범한 여인을 만나 결혼했던 것처럼.

인천시립극단이 꿈꾸는 '타스마니아'

이진아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사무처장)

인천시립극단이 서른아홉 번째 정기공연으로 윤대성의 2001년 작 '타스마니아'(원제목 '타스마니아를 꿈꾸며')를 공연했다. 방송과 연극계를 오가며 왕성한 활동을 보이던 작가가 1990년대 이후 중산층 가정을 배경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묻는 일련의 작품들을 내놓았는데, '타스마니아' 역시 그 같은 맥락에 놓인 작품이다.

인천시립극단의 이번 작품은 몇 가지 점에서 국공립 극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갑고 고맙다. 우선 무대 위에서 다시 '타스마니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창작극 기금을 우려하면서 새로운 작가 발굴, 새로운 작품 창작을 소리 높여 외치는 한국연극계가 이상하게도 기왕에 있는 우리 희곡을 공연하는 것에는 무심하기 때문이다.

희곡의 의미와 생명은 물론 문학으로서의 가치에도 있지만 재론의 여지도 없이 무대화에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 연극계는 해방 이전의 희곡은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 이후의 희곡, 심지어는 10년 전에 쓰인 희곡도 재공연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 희곡을 다시 읽고 해석하고 연출하는 일은 새로 희곡을 창작하고 신인작가를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창작극을 고무하고 작가를 정당한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인천시립극단의 '타스마니아' 공연은 그런 의미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또 하나는 관객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다. 문화예술회관 소극장과 같은 중대형 무대의 공연도 국공립 극단으로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관객과 좀더 밀착된 소극장에서 밀도 있는 공연을 하는 것 역시 국공립 극단이 시도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다수는 대극장 공연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공연이고, 소극장 공연은 저예산으로 가능한 공연이라는 계량적 사고를 하는 듯하다. 물량적 차원의 '가난한 연극'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많은 힘을 쏟은 밀도 있는 소극장 공연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국공립 극단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봉문화회관 소극장과 같은 공간에 관심을 기울인 것만으로도 인천시립극단을 충분히 이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국공립 극단이 해야 할 책임은 오늘의 문제를 오늘의 대중에게 던져주는 일일 것이다. 즉, '지금', '여기서' '반드시' '타스마니아'를 공연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고민이다. 2001년의 관객과 2005년의 관객은 또 다르다. 그때의 시대적 요구로 쓰인 작품은 오늘의 관객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관점으로 다시 해석돼야 한다. 막연하게 논의되는 '현대인의 삶'이니 '영혼의 안식처'니 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표현들은 공연으로 녹아질 때는 이런 맥락의 구체성을 지녀야한다. 그렇지 않고서 주장되는 현대인의 상실과 아픔은 너무 피상적이어서 내 삶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공연에서 지나치게 유형화된 성격 창조 역시 삶의 디테일을 논하기에 장벽이 됐다.

송관우가 디자인한 무대는 상징과 은유로 된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배우의 연기 및 극의 흐름과는 섞이지 못한다. 그것은 극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이 담고 있는 의미를 '주장'하면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한 '전시'는, 그렇지 않아도 조명에 의한 잦은 무대 분할과 독백적으로 해석된 장면들로 인해서 연결과 흐름보다는 고립과 단절이 많은 공연의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인물 각각의 개성이나 인물 간의 소통은 요원한 채 극은 도식적이고 인위적으로 흐른다. 극이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관객의 정서는 따라가 주지 않는 것이다.

이상향 '타스마니아'는 주장되기 보다는 관객이 꿈꾸게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광복60주년기념 특별공연 제40회 정기공연 『아리랑』



* 공연개요

- ◆ 공연일시 : 2005. 8. 13(토)~21(일) 평일 19:30 / 토요일 · 일요일 16:00
- ◆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 관람인원 : 2,7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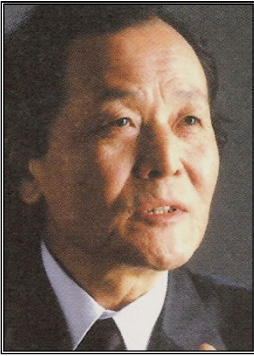
* 작품내용

1905년 치욕적인 을사조약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유린과 폭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더욱이 한반도를 대동아공영을 위한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로 삼아 조선의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내몰린다. 그러나 강제적인 폭압을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고, 오히려 항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폭압이 심할수록 민중들의 항거 또한 거세지기 마련이다. <아리랑>은 일제의 침략과 만행, 그리고 이에 맞선 민중들의 끈질긴 투쟁과 승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한다.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크나큰 희생을 치루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온 감격의 승리였다. 만세의 함성과 함께 아리랑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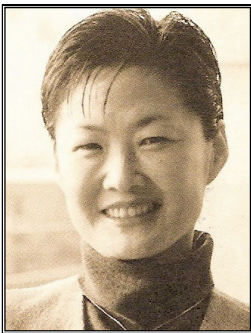
* 주요스텝

◆ 원 작 : 조정래



- 1943년 전남 승주군 선암사 출생.
-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1970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
- 단편집 「어떤 전설」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 「황토」 「한 그 그들의 자리」
- 중편집 「유형의 땅」
- 장편소설 「대장경」 「불놀이」
- 대하소설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 수상 : 현대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소설문학작품상, 단재문학상

◆ 극 본 : 엄태경



- 인천작가회의 사무국장역임
- 시집 「그 집은 따뜻하다」
- 소설 「누나는 봄이면 이사를 한다」
- 「어느 보일러공의 특별한 하루」 각색
- 「바다가 있는 풍경」 번안

◆ 연출 : 정 진 (예술감독)

◆ 무대디자인 : 이경표

◆ 조명디자인 : 김창기

◆ 특수효과 : 최종욱

◆ 조명어시스트 : 문홍식

◆ 연주(아쟁) : 윤호세

◆ 단무장 : 김금식

◆ 조연출 : 손경희

◆ 작곡·음향 : 정석동

◆ 의상디자인 : 손진숙

◆ 무술지도 : 이정훈

◆ 연주(신디사이저) : 이병복

◆ 사 진 : 유재형

◆ 기 획 : 고통희, 이옥희

◆ 프로덕션 : 유재형

◆ 안 무 : 최지연

◆ 분장디자인 : 박영화

◆ 조안무 : 김은화

◆ 연주(장구·북) : 박준형

◆ 진 행 : 유은미

<극장스텝>

◆ 무대감독 : 최성국

◆ 음 향 : 이복행

◆ 조 명 : 이봉도, 방승준, 이승민

* 출연자

◆ 송수익 : 이필훈

◆ 감골택 : 김용란

◆ 백종두·주장록 外 : 서국현

◆ 백남일·양치성 外 : 심영민

◆ 수국 : 강주희

◆ 필녀 : 김문정

◆ 김관술 : 문용철

◆ 거지·의병 外 : 정남철

◆ 일본군장교 外 : 이범우

◆ 요시다·장칠문 外 : 김세경

◆ 송가원 外 : 김현준

◆ 옥향이·처녀 外 : 최지연

◆ 신세호 : 임홍식

◆ 주모 外 : 조윤경

◆ 감독·소련군장교 外 : 차광영

◆ 지삼출 처·아낙 外 : 송정화

◆ 장칠문 처·이주민 外 : 강성숙

< 객 원 >

- ◆ 공허 : 조상건
- ◆ 농민 · 이주민 外 : 김복남
- ◆ 점백이택 · 이주민 外 : 오민휘
- ◆ 배두성 外 : 구선모
- ◆ 구상배 外 : 이준수
- ◆ 일본군 外 : 윤호상
- ◆ 득보 外 : 김유석
- ◆ 지삼출 : 이인철
- ◆ 차갑수 · 농민 · 이주민 外 : 조문의
- ◆ 방영근 · 방대근 : 하성민
- ◆ 옥비 : 최수현
- ◆ 일본군 外 : 이춘근
- ◆ 일본군 外 : 이동춘
- ◆ 옥녀 外 : 정예원
- ◆ 모리야마 · 장덕풍 外 : 하덕성
- ◆ 박건식 · 농민 外 : 이정훈
- ◆ 배필용 外 : 문상현
- ◆ 일본군 外 : 이강중
- ◆ 일본군 外 : 이병주



인천시립극단이 모처럼 시립극단다운 작품을 공연했다. 광복 60주년 기념 특별공연으로 조정래의 소설을 각색한 '아리랑'을 무대화한 것이다. 12권 분량의 대하소설을 시간·공간·인물의 제약이 있는 연극으로 공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시립극단은 과감하게 공연함으로써 적지 않은 의미를 구현했다. 첫째, 광복 6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생생하게 살려냈다. 설명하는 것보다 연극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둘째, 소설을 각색함으로써 희곡의 영역을 확대했다. 탈장르를 지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예술장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이 때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한 것은 연극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특히 일반 극단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하소설을, 시의적절하게 선택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공연 양식을 보여주었다. 프로젝션을 통한 영상은 시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했고, 삽입된 가면극의 춤사위는 '아리랑'의 정서를 살리는데 효과적 이었다. 또 신디사이저, 장구, 북, 아쟁과 같은 동서양 악기를 생음악으로 연주한 것과 총소리 등의 특수효과를 사용한 것도 이번 작품에 대한 시립극단의 열의를 느끼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연에 대한 연극적 평가를 내린다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는 좋았으나 과욕이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가장 큰 문제점은 소설 '아리랑'을 각색하면서 공연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피소드식 사건의 나열과 잦은 암전은 작품을 평면적으로 만들고, 감정이입까지 방해함으로써 극적 재미를 반감시켰다. 방대한 양의 레제드라마 '파우스트'는 전막공연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중심인물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갈등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작품이 얼마나 무모했나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전체를 보여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방씨 일가와 송수익 일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또 공연상의 미숙한 점이 자주 눈에 띄었다. 등장하는 배우 수만도 36명이나 되기 때문에 연출은 이들의 움직임에 잘 정리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동선이 겹치고, 시선이 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면극 춤사위 등 연습이 필요한 움직임들은 어설프고, 그나마 제각각이어서 연습부족을 그대로 노출했다. 리듬감이 살아나야 할 배우들의 사투리도 설명적인 대사에 묻혀 객석으로 잘 전달되지 않았고, 프로젝션 영상과 극적 상황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공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공간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된 원형무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모처럼 딱 찬 객석을 보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공연을 했더라면 시립극단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평가되고 기록되는 것은 공연이라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인천 연극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공연이었다.

제41회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 공연개요

- ◆ 공연일시 : 2005. 12. 9(금)~18(일) 평일 19:30 / 토요일 · 일요일 16:00
- ◆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 관람인원 : 1,610명

* 작품내용

‘레티스’는 관광객들에게 음침한 저택 퍼스티언 하우스를 설명해주는 문화재 관리처의 안내원이다. 연극적 상상가이기도 한 중년의 레티스는 자신의 뛰어난 언변을 자제하면서 암기한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하지만 정작 관광객들의 반응은 우울하고 지루한 반응이다.

반복된 안내에 레티스 역시 단조롭고 지루하다. 급기야 그녀는 과장된 설명을 덧붙이지만, 문화재관리처 인사과에 근무하는 ‘롯데’에게 부정확한 안내가 들통 난다. 롯데는 레티스의 정확하지 못한 일처리를 추궁하며 해고를 통보한다.

해고된 후 자신의 지하 아파트에서 연극연습을 하던 레티스를 롯데가 방문한다. 롯데는 해고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는데, 롯데가 쓴 추천서에 감동한 레티스는 자신이 마시던 술 ‘러비지(Lovage)’를 권한다. ‘사랑(love)과 아픔(ache)’이라는 러비지의 의미처럼 두 사람은 점차 취해가며 서로를 이해한다.

이후 둘은 유명한 여성들의 죽음을 연극으로 재현하던 중 레티스의 실수로 그녀가 들고 있던 도끼가 롯데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고 이를 본 경찰에 의해 살인미수로 기소된다. 그러나 롯데는 한사코 레티스에게 죄가 없다고 항변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면서 새로운 여행사를 세워 동업을하기로 한다. 연극적인 재능을 살려 관광객들에게 유쾌한 안내를 하기로 하면서 행복한 축배를 든다.

극중극의 차원 높은 재미

역자 / 윤미덕

피터 쉐퍼(Peter Shaffer)의 에쿠우스(Equus, 1970)나 아마데우스(Amadeus, 1979)등의 희곡작품은 연극 또는 영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고 상영되었으므로 관객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객에게는 전혀 생소한 작품인 레티스와 러비지(Lettice and Lovage, 1987)가 인천시립극단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무척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작품은 극 구성이 아주 짜임새 있게 잘 꾸며져 있을 뿐 아니라 재치가 넘치는 언어의 사용으로 인해 더 더욱 재미를 자아내는 연극인데, 번역하여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진수를 놓칠 수도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극만을 공연하는 여성극단을 이끌었던 레티스의 어머니는 항상 세 개의 "E"(three E's)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연극의 세 가지 기능을 일컫는 말로서 "Enlarge(견해를 넓혀주고)", "Enliven(활기차게 해 주고)", "Enlighten(계몽한다)"을 의미하는데 번역에서는 그 말의 묘미를 전달 할 수가 없다.



또한 오렌지를 가지고 만든 잼인 마아멜레이드의 어원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레티스와 롯데가 함께 세우겠다고 말하는 이엔디(END) 여행사의 이름이 주는 재미는 우리말로로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엔디(end)는 미적 감각이 결여된 현대식 건물을 "끝내버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말은 롯데가 대학생 시절에 남자 친구와 함께 행동했던 추한 건물 파괴단(E: Eyesore, 눈에 거슬리는 것을 N: Negation, 없애버리는 D: Detachment, 파괴대)의 첫 자를 딴 말이기도 하다.

이 극은 연극 자체를 비취주는 반영극 혹은 메타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극 속에는 여러 편의 극중극이 들어 있으며 극중 인물들은 본 극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맡아 하면서 또 다시 극중극에서의 여러 역할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맡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연극이란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연극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연극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기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대 소도구와 스텝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등을 작가는 흥미진진한 줄거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작가의 창작행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쉐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열렬히 주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각도에서 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은 또 다른 차원의 재미를 느낄 것이다.

* 원작 : 피터 웨퍼

- 영국 극작가로 현존하는 영국 극작가 중 가장 성공적인 작가

1926년 잉글랜드 리버풀 출생.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사학 전공.

1954년 TV드라마 '소금의 땅(The Salt Land)' 이후 전업 작가

1958년 장막극 '다섯 손가락 연습(Five Finger Exercise)' 발표

1964년 '태양사냥(The Royal Hunt of the Sun)'

1973년 '에쿠우스(Equus)'

1976년 '아마테우스(Amadeus)'

1987년 '레티스와 러비지(Lettice and Lovage)'

1993년 '골곤의 선물(The Gift of the Gorgon)'

- '레티스와 러비지'로 1987년 최고연극상 수상

* 출연자



◆ 레티스 뉘페 : 강주희

러비지 말예요. 약초지요. 그 이름은 love, 즉 사랑, 그리고 ache, 즉 아픔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이젠 술잔에 푹푹 떨어지게 붓는 술이 아니고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야 하는 술이에요. 그리고 이젠 별걱별걱 마셔야 해요. 자, 당신을 위해서! 관대한 친구를 위해서!



◆ 룯데 손 : 김문정

E,N,D를 기억해요? '눈에 거슬리는 것을 끝장내는 특공대' 말이에요. 움츠러든 영혼을 확장시키는 것, 죽어가는 정신을 활기 있게 하는 것, 어두침침하고 상상력이 없는 눈을 계몽하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러비지'입니다.

◆ 바아돌프 : 이범우

◆ 시무룩한 사나이 : 차광영

◆ 프레이머 : 강성숙

◆ 니콜라스 경 : 정남철

◆ 여왕 : 조윤경

◆ 존 퍼스티언 : 서국현

◆ 관객들 : 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최지연

* 주요스텝

- ◆ 작곡 : 채희준
- ◆ 분장디자인 : 박영화
- ◆ 사진 : 유재형
- ◆ 기획 : 김금식(단무장), 고동희, 이옥희, 유은미
- ◆ 무대디자인 : 송관우
- ◆ 음향디자인 : 정석동
- ◆ 비디오 : 이재한
- ◆ 의상·소품디자인 : 손진숙
- ◆ 조연출 : 이지미
- ◆ 조명(Pin oper) : 김현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무대스텝>

- ◆ 무대감독 : 최성국
- ◆ 음향 : 이복행
- ◆ 조명 : 이봉도, 방승준, 이승민
- ◆ 기계 : 나명용

※ 시립극단 공연현황 총괄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계	6건 / 41회			5,923명
2005. 4. 8~17 소공연장	제38회 정기공연 “산불”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정남철, 김용란,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송정화,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상임)</p> <p>오민휘, 차상미, 김성숙, 박덕순 (객원)</p> <p>차범석 (극작가) 정 진 (예술감독) 문고현 (연출) 손경희 (조연출) 송관우 (무대 디자인) 손진숙 (의상 디자인) 박영화 (분장 디자인) 이복행 (음향디자인) 이나구 (조명디자인) 최성국 (무대감독) 송원호 (사진) 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 (기획) 유은미 (진행)</p>	<p>“산불”은 6·25라는 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인간 본연의 삶과 사랑에 대한 갈증을 그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품이다. “산불”은 이미 50년도 훨씬 더 지난 ‘그 때’의 일이지만, 비록 형식이나 사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간성의 마멸이 주는 비극과 그 비극에 맞서야 하는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p> <p>“산불”은 이데올로기와 전쟁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대립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은 없다. 삶의 본능적 욕구를 시급하고 절실하게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념의 문제는 그다지 절박하지 않다. 이데올로기의 고민보다 한 끼의 식량이 더 급한 문제가 되고, 나아가 적이라는 대립관계조차 과부들의 애육 앞에 무너지고 만다.</p> <p>그러나 전쟁과 이념이 강요하는 희생으로부터 개개인은 자유롭지 못하고 점차 피폐해져간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노망이 든 불완전한 사람만이 전쟁의 폐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은 전쟁이라는 적나라한 비극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p>	567명
2005. 4. 8~17 소공연장	청소년을 위한 공연 “산불” (총 1회 공연)	”	”	249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05. 6. 16~26 수봉문화회관 소극장</p>	<p>제39회 정기공연 “타스마니아”</p>	<p>조윤경, 서국현, 차광영,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김문정 (상임)</p> <p>윤대성 (극작가) 정 진 (예술감독) 박원경 (연출) 김세경 (조연출) 손경희 (무대감독) 송관우 (무대디자인) 박준상 (작곡) 박영화 (분장디자인) 최성민 (음향) 박석광 (조명디자인) 유재형 (사진) 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기획) 유은미 (진행)</p>	<p>신경정신과 의사인 최박사의 환자중에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인 미모의 윤애주라는 환자가 있다. 최박사에게는 김하림이라는 출판사 편집국장인 또 다른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강박증 환자이다.</p> <p>우연한 기회로 김하림과 윤애주가 만나게 되고 최박사는 윤애주의 이야기를 시인인 김하림이 뮤지컬극본으로 써서 공연을 하자는 제안을 한다. 윤애주는 무대에서 자신의 욕구를 발산함으로써 억압에서 탈출하고, 김하림은 시와 드라마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내재된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p> <p>모노드라마의 시연회 날. 윤애주의 전남편 장근대가 찾아오고, 이를 본 김하림이 발작을 일으키며 그들의 숨겨진 아픔이 하나씩 드러나는데…….</p>	<p>780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5. 8. 13-21 소공연장	제40회 정기공연 “아리랑”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김문정, 최지연 (상임)</p> <p>조상진, 이인철, 하덕성, 김복남, 조문의, 하성민, 이정훈, 오민휘, 최수현, 구선모, 문상현, 이준수 (객원)</p> <p>이춘근, 이강중, 윤호상, 이동춘, 이병주 (단역) 김유석, 정예원 (아역)</p> <p>조정래 (원작자) 엄태경 (극본) 정 진 (예술감독, 연출) 손경희 (조연출) 정석동 (작곡·음향) 최지연 (안무) 이경표 (무대디자인) 김창기 (조명디자인) 손진숙 (의상디자인) 박영화 (분장디자인) 유재형 (프로젝션/사진) 최종욱 (특수효과) 최수현 (소리) 이정훈 (무술지도) 이병복 (신디사이저) 박준형, 윤호세 (국악연주)</p> <p>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기획) 유은미 (진행)</p>	<p>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은 일제 침략기부터 해방기까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민사를 다룬 민족의 대서사시다. 전체 4부 12권으로 완간되어 4백여만 명의 독자들에게 읽힌 작품으로 민중들의 행위가 역사의 진행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역사적 진실을 일궈내는가를 자세히 보여준다.</p> <p><아리랑>의 가치는 한국민족의 고통과 절망뿐만 아니라 민중의 토속적이고 순수한 쾌활함까지 보여준다는 데 있다. 아울러 기득권 세력들의 옹지 못한 타협과 망각,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 끈질긴 추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p> <p>1905년 치욕적인 을사조약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유린과 폭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더욱이 한반도를 대동아공영을 위한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로 삼아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내몰린다. 그러나 강제적인 폭압으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고, 오히려 항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폭압이 심할수록 민중들의 항거 또한 거세지기 마련이다.</p> <p><아리랑>은 일제의 침략과 만행, 그리고 이에 맞선 민중들의 끈질긴 투쟁과 승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p> <p>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한다.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크나큰 희생을 치루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온 감격의 승리였다. 만세의 함성과 함께 아리랑이 흐르는데 미군과 소련군의 군화발이 한반도를 짓누른다.</p>	2,717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5. 12. 9-18 소공연장	제41회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김문정, 최지연 (상임)</p> <p>피터쉐퍼 (영국 극작가) 정 진 (예술감독) 손경희 (연출) 채희준 (작곡) 송관우 (무대디자인) 손진숙 (의상디자인) 박영화 (분장디자인) 정석동 (음향디자인) 이지미 (조연출) 김현준 (Pin oper) 유재형 (사진) 이재한 (비디오) 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기획) 유은미 (진행)</p>	<p><레티스의 이상한 술>은 인간관계에 대한 연극적 해석을 다룬 작품으로, 이는 피터 쉐퍼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남성들의 대립적인 인간관계를 다룬 피터 쉐퍼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여성들의 대립과 이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p> <p>연극적인 소질과 열정을 가진 관광안내원 ‘레티스’와 그녀를 고용한 문화재관리청의 냉정하고 이지적인 여직원 ‘롯데’의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상이한 성격의 두 사람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립하거나 갈등으로 인한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이며 화해이자 조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피터 쉐퍼가 작품의 제목으로 쓴 ‘러비지(Lovage)’의 두 가지 의미인 사랑(love)과 아픔(ache)에도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p>	589명
2005. 12. 9-18 소공연장	청소년을 위한 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총3회 공연)	”	”	1,021명

✽ 정기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4건 / 37회			4,656명
2005. 4. 8-17 소공연장	제38회 정기공연 “산불” (총9회 공연)	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정남철, 김용란,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송정화,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상임) 오민휘, 차상미, 김성숙, 박덕순 (객원) 차범석 (극작가) 정진 (예술감독) 문고현 (연출) 손경희 (조연출) 송관우 (무대 디자인) 손진숙 (의상 디자인) 박영화 (분장 디자인) 이복행 (음향디자인) 이나구 (조명디자인) 최성국 (무대감독) 송원호 (사진) 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윅희(기획) 유은미 (진행)	“산불”은 6·25라는 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인간 본연의 삶과 사랑에 대한 갈증을 그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품이다. “산불”은 이미 50년도 훨씬 더 지난 ‘그 때’의 일이지만, 비록 형식이나 사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간성의 마멸이 주는 비극과 그 비극에 맞서야 하는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산불”은 이데올로기와 전쟁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대립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은 없다. 삶의 본능적 욕구를 시급하고 절실하게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념의 문제는 그다지 절박하지 않다. 이데올로기의 고민보다 한 끼의 식량이 더 급한 문제가 되고, 나아가 적이라는 대립관계조차 과부들의 애육 앞에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전쟁과 이념이 강요하는 희생으로부터 개개인은 자유롭지 못하고 점차 피폐해져간다. 체정신이 아니거나 노망이 든 불완전한 사람만이 전쟁의 폐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은 전쟁이라는 적나라한 비극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570명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p>2005. 6. 16-26 수봉문화회관 소극장</p>	<p>제39회 정기공연 “타스마니아” (총10회 공연)</p>	<p>조운경, 서국현, 차광영,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김문정 (상임)</p> <p>윤대성 (극작가) 정진 (예술감독) 박원경 (연출) 김세경 (조연출) 손경희 (무대감독) 송관우 (무대디자인) 박준상 (작곡) 박영화 (분장디자인) 최성민 (음향) 박석광 (조명디자인) 유재형 (사진) 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기획) 유은미 (진행)</p>	<p>신경정신과 의사인 최박사의 환자중에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인 미모의 윤애주라는 환자가 있다. 최박사에게는 김하림이라는 출판사 편집국장인 또 다른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사는 강박증 환자이다.</p> <p>우연한 기회로 김하림과 윤애주가 만나게 되고 최박사는 윤애주의 이야기를 시인인 김하림이 뮤지컬극본으로 써서 공연을 하자는 제안을 한다. 윤애주는 무대에서 자신의 욕구를 발산함으로써 억압에서 탈출하고, 김하림은 시와 드라마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내재된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에서다.</p> <p>모노드라마의 시연회 날. 윤애주의 전남편 장근대가 찾아오고, 이를 본 김하림이 발작을 일으키며 그들의 숨겨진 아픔이 하나씩 드러나는데…….</p>	<p>780명</p>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2005. 8. 13-21 소공연장	제40회 정기공연 “아리랑” (총9회 공연)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김문정, 최지연 (상업)</p> <p>조상진, 이인철, 하덕성, 김복남, 조문의, 하성민, 이정훈, 오민휘, 최수현, 구선모, 문상현, 이준수 (객원)</p> <p>이춘근, 이강중, 윤희상, 이동춘, 이병주 (단역)</p> <p>김유석, 정예원 (아역)</p> <p>조정래 (원작자) 엄태경 (극본) 정 진 (예술감독, 연출) 손경희 (조연출) 정석동 (작곡 · 음향) 최지연 (안무) 이경표 (무대디자인) 김창기 (조명디자인) 손진숙 (의상디자인) 박영화 (분장디자인) 유재형 (프로젝션/사진) 최종욱 (특수효과) 최수현 (소리) 이정훈 (무술지도) 이병복 (신디사이저) 박준형, 윤희세 (국악연주)</p> <p>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기획) 유은미 (진행)</p>	<p>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은 일제 침략기부터 해방기까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 이 민사를 다룬 민족의 대서사시다. 전체 4부 12권으로 완간되어 4백 여만 명의 독자들에게 읽힌 작품으로 민중들의 행위가 역사의 진행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역사적 진실을 일궈내는가를 자세히 보여 준다.</p> <p><아리랑>의 가치는 한국민족의 고통과 절망뿐만 아니라 민중의 토 속적이고 순수한 쾌활함까지 보여 준다는 데 있다. 아울러 기득권 세력들의 옹지 못한 타협과 망각,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 끈질긴 추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p> <p>1905년 치욕적인 을사조약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유린과 폭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더욱이 한 반도를 대동아공영을 위한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로 삼아 백성들은 감 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으로 내몰린다. 그러나 강제적인 폭압으로 백 성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고, 오히려 항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폭압이 심할수록 민중들의 항거 또한 거세지기 마련이다. <아리랑>은 일제의 침략과 만행, 그리고 이에 맞선 민중들의 끈질긴 투쟁과 승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 고 있다.</p> <p>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한다.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크나큰 희생을 치루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온 감격의 승리였다. 만세의 함성과 함께 아리랑이 흐르는데 미군과 소련군의 군화발이 한반도를 짓누른다.</p>	2,717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05. 12. 9-18 소공연장</p>	<p>제41회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총9회 공연)</p>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김문정, 최지연 (상임)</p> <p>피터쉐퍼 (영국 극작가) 정 진 (예술감독) 손경희 (연출) 채희준 (작곡) 송관우 (무대디자인) 손진숙 (의상디자인) 박영화 (분장디자인) 정석동 (음향디자인) 이지미 (조연출) 김현준 (Pin oper) 유재형 (사진) 이재한 (비디오) 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기획) 유은미 (진행)</p>	<p><레티스의 이상한 술>은 인간관계에 대한 연극적 해석을 다룬 작품으로, 이는 피터 쉐퍼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남성들의 대립적인 인간관계를 다룬 피터 쉐퍼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여성들의 대립과 이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p> <p>연극적인 소질과 열정을 가진 관광안내원 ‘레티스’와 그녀를 고용한 문화재관리청의 냉정하고 이지적인 여직원 ‘룻데’의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상이한 성격의 두 사람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립하거나 갈등으로 인한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이며 화해이자 조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피터 쉐퍼가 작품의 제목으로 쓴 ‘러비지(Lovage)’의 두 가지 의미인 사랑(love)과 아픔(ache)에도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p>	<p>589명</p>

※ 청소년을 위한 공연

일시/장소	공연명	출연	프로그램	관람인원
계	2건 / 4회			2,426명
2005. 4. 8-17 소공연장	제38회 정기공연 “산불” (총1회 공연)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정남철, 김용란,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강주희, 송정화, 김현준, 강성숙, 정순미, 김문정 (상임)</p> <p>오민휘, 차상미, 김성숙, 박덕순 (객원)</p> <p>차범석 (극작가) 정진 (예술감독) 문고현 (연출) 손경희 (조연출) 송관우 (무대 디자인) 손진숙 (의상 디자인) 박영화 (분장 디자인) 이복행 (음향디자인) 이나구 (조명디자인) 최성국 (무대감독) 송원호 (사진) 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윅희(기획) 유은미 (진행)</p>	<p>“산불”은 6·25라는 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인간 본연의 삶과 사랑에 대한 갈증을 그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품이다. “산불”은 이미 50년도 훨씬 더 지난 ‘그 때’의 일이지만, 비록 형식이나 사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인간성의 마멸이 주는 비극과 그 비극에 맞서야 하는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p> <p>“산불”은 이데올로기와 전쟁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대립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은 없다. 삶의 본능적 욕구를 시급하고 절실하게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념의 문제는 그다지 절박하지 않다. 이데올로기의 고민보다 한 끼의 식량이 더 급한 문제가 되고, 나아가 적이라는 대립관계조차 과부들의 애육 앞에 무너지고 만다.</p> <p>그러나 전쟁과 이념이 강요하는 희생으로부터 개개인은 자유롭지 못하고 점차 피폐해져간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노망이 든 불안정한 사람만이 전쟁의 폐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순된 상황은 전쟁이라는 적나라한 비극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p>	816명

일시/장소	공 연 명	출 연	프 로 그 램	관람인원
<p>2005. 12. 9-18 소공연장</p>	<p>제41회 정기공연 “레티스의 이상한 술” (총3회 공연)</p>	<p>이필훈, 문용철, 임홍식, 김용란, 정남철, 조옥선, 서국현, 이범우, 차광영, 심영민, 김세경, 송정화, 강주희, 김현준, 강성숙, 김문정, 최지연 (상임)</p> <p>피터웨퍼 (영국 극작가) 정 진 (예술감독) 손경희 (연출) 채희준 (작곡) 송관우 (무대디자인) 손진숙 (의상디자인) 박영화 (분장디자인) 정석동 (음향디자인) 이지미 (조연출) 김현준 (Pin oper) 유재형 (사진) 이재한 (비디오) 김금식 (단무장) 고동희, 이옥희(기획) 유은미 (진행)</p>	<p><레티스의 이상한 술>은 인간관계에 대한 연극적 해석을 다룬 작품으로, 이는 피터 웨퍼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남성들의 대립적인 인간관계를 다룬 피터 웨퍼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여성들의 대립과 이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p> <p>연극적인 소질과 열정을 가진 광안내원 ‘레티스’와 그녀를 고용한 문화재관리청의 냉정하고 이지적인 여직원 ‘룻데’의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상이한 성격의 두 사람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립하거나 갈등으로 인한 파국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이며 화해이자 조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피터 웨퍼가 작품의 제목으로 쓴 ‘러비지(Lovage)’의 두 가지 의미인 사랑(love)과 아픔(ache)에도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p>	<p>1,021명</p>

